

## 일부 지방대학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

김문정<sup>†</sup> · 김소희<sup>\*</sup> · 변은경<sup>\*\*</sup>

(<sup>†</sup>부경대학교 · <sup>\*</sup>영산대학교 · <sup>\*\*</sup>경남정보대학)

### The Experiences of Students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at Local Universities

Moon-Jeong KIM<sup>†</sup> · So-Hee KIM<sup>\*</sup> · Eun-Kyung BYUN<sup>\*\*</sup>

(<sup>†</sup>Pukyong National University · <sup>\*</sup>Yongsan University · <sup>\*\*</sup>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scribe the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nursing college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collect qualitative data, 10 personal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ne 2013 to September 2014. Five sub-themes emerged from the data as follows: Participants started new challenge with self-confidence; Nursing science was difficult and unfamiliar disciplines to them; Firstly, they had no place in nursing department, but got places of their own over time; They managed to hold their own in confronting with difficulties; They consequently made personal upgrades in their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guide nursing faculties to understand what kind of burdens transfer students experienced, how they had adapted to them, and how to support them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to grow into competent nurses.

**Key words :** Transfer student, Nursing, Qualitative research

#### I. 서론

한국 사회의 학벌 중심적 특성은 최근 대졸자의 취업난과 맞물려 대학생들의 대학 간 이동과 전공의 재 선택이 가능한 대학 편입 증가현상을 가져왔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대학 편입생 수는 35,000명을 넘어섰고 간호학과의 편입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일반적으로 편입생들은 입학 이후 기존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새로운 학교와 학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학사관리 및 인간관계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Oh Young-Jae 2006), 편입생들을 관리하는 지도교수에게는 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Sin Gyeong-Lim · Cha Eun-Jeong & Kim Yeong-Hye, 2003; Yeom Ji-Sook, 2009).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 뿐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Sin Gyeong-Lim et al., 2003). 이는 같은 전공을 하는 이들의 집단속에서 전문가에 의해 또는 학습자간 교류를 통해 전문지식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787, mjy7955@pknu.ac.kr

과 가치, 감각, 행동규범 등을 습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간호학과와 편입은 일반 타 전공에 비하여 다소 독특한 과정을 밟도록 되어 있다. 즉 일반학과 편입은 보통 2년이 소요되나, 간호학과 편입은 3학년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에 대비하여 전공기초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제 상 3학년으로 편입하기는 하나 실제로는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3년간의 편입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타 전공에 비해 학습량이 과중하고, 학업 외에 간호의 문화와 규범 등을 습득해야하기 때문에 편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편입 첫 학기는 혼돈과 당황, 걱정 속에 학교에 매이면서 학업과 학과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있다(Kim Kon-Hee & Hwang Eun-Hee, 2012). 또한 이방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학업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주변의 도움과 원하는 공부에 대한 즐거움과 책임감을 경험하고 있었다(Sin Gyeong-Lim et al., 2003). 그러나 대체로 편입생들은 4년제 대학의 문화와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과의 비주류로 남게 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어려움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Cameron C. S., 2003; Lewis C. & Lewis J. H., 2000). 또한 편입생의 적응과정에서 간호문화를 경험하고 익히는 과정들이 생략되거나 변형되면서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Kim Yeong-Kyeong · Cho Myung-Ok & Yang Jin-Hyang, 2005). 편입생이 대학생활 동안 겪는 학업과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질적으로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간호교육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생들은 재차 선택한 자신의 전공에 대한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Kim Kyoung-Jun, 2000), 특히 간호학과와 경우 다른 학제의 간호학생에 비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Park Jin-Hee, 2012). 편입 이후의 학업과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잘 이루어진다면 편입생은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우수한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자에게 있어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은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편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Sin Gyeong-Lim et al.(2003)은 수도권 일 개 대학의 편입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접근으로 편입 체험을 조사하였다. Kim Yeong-Kyeong et al.(2005)은 세 개 지방대학의 편입생을 대상으로 정체성 변화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Kim Kon-Hee & Hwang Eun-Hee(2012)는 편입 첫 학기의 대학생활 체험으로, 간호학과 적응에 큰 관건이 되는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간호학과 정원과 편입이 현재의 수준으로 급증하기 이전에 수도권 일 개 대학의 편입생에 한정되었거나, 정체성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편입 첫 학기 적응만을 다루었다. 따라서 지방대학 편입생을 대상으로 수업과 실습을 포함한 학과생활의 전반적인 과정을 포함한 탐색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편입생의 성공적인 학과 및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개 지방대학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나 통찰을 얻기 위해 맥락을 상실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질적연구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며, 연구질문은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의 성공적인 학과적응을 지원하기 위

한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II. 조사방법 및 내용

### 1. 조사 방법

#### 가.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대학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이루어진 질적내용분석 연구이다.

#### 나. 연구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부산, 경남에 소재하는 4년제 간호학과 3·4학년 편입생으로, 학과 게시판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접하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10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 방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 참여 철회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연구 종료 후 음성, 파일, 인쇄 자료는 모두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고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면담 전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사생활 발설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각 연구자가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학생이 아닌 타 대학 소속의 학생만을 면담하였다.

#### 다. 자료수집 및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루어졌다. 우선 참여자들과의 전화통화로 면담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하였는데 시간은 참여자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시간으로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참여자 소속대학의 빈 강의실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 질문은 ‘간호학과에 편입한 이후에 어떤 경험들을 했습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고 참여자들의 진술을 경청하면서 공감할

표하고 진술이 더 자유롭고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술 중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나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그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줄래요?’, ‘그때 어떤 생각(기분)이 들었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해 주세요’와 같은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진술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은 녹음기를 사용하여 음성녹음 하였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필사하여 음성파일과 재차 비교 확인을 통해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포화가 확인되는 시점까지 10명의 참여자와 1~2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60분~90분이었다.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박사학위 논문 외 다수의 논문을 작성하였고 질적 연구 관련 세미나와 학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편입생들을 지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민감성을 지니게 되었다.

#### 라. 자료분석 및 연구의 타당도 확보

본 연구는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Graneheim U. H. & Lundman B., 2004)에 의해 분석되었다. 이는 의사소통이론에 근거를 두고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원자료에 드러나는 내용(manifest content: category)뿐만 아니라 숨은 내용(latent content: theme)도 중요시한다. 이 방법은 연구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과 원자료가 말하는 의미 사이의 해석적인 균형을 강조한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사본을 가능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반복적으로 읽었다. 2) 연구주제인 대학생활과 관련이 있는 단어와 진술문을 의미 단위(meaning unit)로 나누었다. 의미 단위는 원자료와 가까운 묘사 수준이며 초기 추상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의미 단위를 좀 더 요약적으로 기술하였다. 4) 요약된 의미단위를 해

석하였다. 5) 해석된 의미단위를 내부적으로는 동질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질적인 특성을 갖도록 주의하면서 4개의 하부주제로 추상화 하였다. 6) 마지막 단계는 하부주제를 중심주제로 묶는 것이지만 인위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과정은 생략하였다.

질적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기 위해 Guba E. G.(1981)의 네 가지 기준을 준용하였다. 우선 연구자의 선입견이 면담이나 자료분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신빙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차분석 결과가 의미와 설득력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적합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를 인용문으로 삽입하였으며, 연구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감사가능성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빙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통해 확증성을 확립하였다(Sandelowski M., 1986).

###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Qualitative content analysis로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간호학과 편입생으로 3학년 4명, 4학년 6명이었다. 이들의 성별은 여학생 8명, 남학생 2명이었고, 전적 학교에서의 전공은 자연계열 3명, 인문사회계열 6명, 체육전공 1명이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편입생의 대학생활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확신에 찬 새로운 도전’, ‘낮설고 힘겨운 간호학의 길’, ‘굴러온 돌의 내 자리 찾기’, ‘꿇꿇이 버티기’, ‘인생의 업그레이드’ 등 5개 하부주제로 나타났다.

#### 1. 확신에 찬 새로운 도전

가. 간호사라는 새로운 꿈

참여자들은 간호사가 되려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위해 간호학과에 편입하게 되었

다. 새롭게 간호사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적성, 취업과 안정된 직장, 전문가로서 자기계발, 부모님의 권유 등을 고려한 결과인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포기했던 간호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제도전인 경우도 있었다.

“중간에 편입을 하게 되면서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이 되니깐 그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3)

나. 확신에 찬 자기결정

간호학과 선택은 다른 길을 한 번 가본 후에 세상물정에 눈뜬 명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자기결정의 산물이었다. 즉 이 길만이 나의 길이며, 나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해서 들어온 건데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다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참여자 2)

#### 2. 낮설고 힘겨운 간호학의 길

가. 예상보다 힘든 공부

참여자들은 만만치 않은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대해 익히 들어왔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다. 편입생으로서 단기간에 많은 교과목 이수, 선수과목의 동시 이수, 더블수업으로 학습량은 이전보다 두 배로 체감되었다. 선수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으며 실습 중에는 잦은 평가와 집담회 준비로 힘들었다.

“노력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제도 몰리다 보면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스트레스가 만땅이에요.” (참여자 9)

나. 낮선 교수·학습방식

이미 타 학과에서 대학 공부를 해 본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의 수업방식이 이전의 전공과 비교되고 낮설게 받아들여졌다. 특히 자유로운 사고가 허용되지 않는 주입식 교육, 강의전달 위주의 수

동적인 수업, 세부적인 내용까지 암기해야 하는 학습방식, 객관식과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 유형 등이 낮설었다.

“시험도 답, 정답만 써야 되니까. 이전 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 없었는데 객관식 문제 있고, 수업 내용 다 외워야 되고...” (참여자 1)

다. 학업에 집중함

참여자들은 간호학문의 낮설고 과중한 부담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가생활을 포기하고 공부 위주로 생활하였다. 학기 내내 시험과 평가 준비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였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자책과 실망을 느꼈다.

“편입해 2학년 때 수업시간에 따라 갈러니깐 수업시간도 줄고. 이전 과에서는 시험 쳐도 잘 먹고 잘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못 먹고 못자고 거의 그냥 적응하는데, 공부에만 올인 했어요.” (참여자 3)

### 3. 굴러 온 돌의 내 자리 찾기

가. 박힌 돌과 굴러 온 돌

간호학과 편입생으로서 또 다른 어려움은 기존 학생들과의 관계였다. 참여자들은 기존학생들은 박힌 돌로, 자신들은 굴러 온 돌로 인식하면서 기존학생들에게 자신은 관심 밖의 존재임을 인식하였다. 편입생과 기존학생 모두 ‘우리 대 개네’로 상대를 분리하였다. 나이 때문에 선후배 관계 맺음도 어려워 결국 학과 내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낮은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 집단에서 똑같이 들어와 가지고 똑같이 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좀 편입생 이런 소리 들으니깐 제가 조금 소원해진다 이렇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참여자 7)

나. 먼저 다가서기

참여자들은 처음에 기존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싶어도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오해 받을까

봐 조심스러웠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먼저 다가갔다. 서로의 공감대를 찾아 연결의 고리를 만들고 만남의 기회를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감이 생기고 상호 지지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딱 보니까 취향하고, 그런 부분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친해졌으니깐 친해지면 당연히 뭐, ‘이거 부탁할게. 해주라 해줘.’ 이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다. 동병상련의 동지애

편입 동기들도 큰 힘이 되었다. 비슷한 또래로서 대하기 편하였고 비슷한 처지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다. 특히 적응 초기에 강한 결속을 이루어 걱정거리를 함께 나누고, 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어려운 정보나 공부에 대한 이해도 공유하였다.

“보통 간호학과 학생들에 비해서 많은 나이, 뽀뽀한 수업 스케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많은 양의 정보들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조심스러움,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이 많아서 친해졌던 거 같아요.” (참여자 9)

라. 전화위복의 기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간 동안 기존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였다. 임상실습 시, 학생들은 같은 조끼리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간호를 직접 체험함과 동시에 걸돌던 편입생이 간호학과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견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실습은 처음 나갔을 때 학교 오는 것 보다 좋았어요. 애들이랑 계속 붙어있고 서로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하면서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밥도 계속 같이 먹고 이러니깐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9).

### 4. 곳곳이 버티기

가. 희망으로 버티기

참여자들은 편입생활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사용하였다. 간호학과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일정한 코스가 정해져 있으니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꿈을 이루거나,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소기의 결실을 이룰 때까지 버티겠다는 결심이 굳었다.

“시작했으니까 되돌릴 수 없는(웃음)...(중략) 그런데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포기하기에는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깝고 되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자 언제든 끝나도 끝날 거니까 라고 생각하죠.” (참여자 4)

나. 자기결정에 책임지기

힘들 때는 간호학과 편입을 간절히 바랐던 초심을 떠올리며 자기결정에 책임질 것을 다짐하였다. 초심을 다잡는 방법으로 현재와 미래 간호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기도 하였다.

“처음 내가 얼마나 간호학과를 원했었는지를 생각하고요. 내가 편입하기 전에 나한테 편입하기 전, 과를 전공했을 때와 간호사로서의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 비교해보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이겨냈어요.” (참여자 3)

다. 틈틈이 풀어내기

틈 날 때마다 차 마시기, 지인들과 통화하기, 짧은 여행하기, 쉬기, 놀기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내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낸 후에 재빨리 마음을 다잡는 일도 풀어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스트레스는 중간 중간에 확 풀려고 해요. 근데 확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차 마시는 것도 좋고 당일치기로 어디 간다든지 해서 하루 잘 놀고 그 다음에는 마음 빨리 잡아야 되니까 되도록 풀려고 노력해요.” (참여자 3)

라. 위로와 격려로 힘 얻기

가족과 친구들의 위로나 격려가 힘이 되었다. 부모님이 간호학과를 권유한 경우 더 많은 지지와 격려가 있었다. 부모님은 집안에 의료인이 나

게 된다면 자랑스러워하였고, 친구들도 부러워하였다. 참여자들은 주변의 인정과 기대를 받으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친구들이 ‘너는 간호사 할 줄 알아, 잘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제가 포기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8)

5. 인생의 업그레이드

가. 적응하며 성장함

참여자들은 기존학생들과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실습과 조별과제를 함께 하면서 친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렵던 강의내용이 이해되고, 전공이 재미있었으며, 일상경험을 간호와 연관시키게 되었다. 참여자들에게 편입은 자율적 성취의 경험이었다. 이전 학과의 선택이 성적이나 부모의 영향 같은 타의였다면, 간호학과 편입은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한 경험이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상승시킨 전환이었다.

“처음으로 편입 자체는 자기가 선택해야 될 일도 많고, 결정도 선택하고, 과도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게 처음으로 내 자신에 대한 성취감을 얻은 것 같고요.” (참여자 3)

나. 간호사로서 미래를 전망

편입 초기에는 간호사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차차 진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면서 간호사로서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되었다. 간호사로서 지향은 일 잘하는 유능한 간호사, 영적간호나 환자와 좋은 관계를 실천하는 간호사 등이 있었다. 반면에 국가고시와 취업, 병원 적응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취업한 선배의 병원 적응담을 들으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에 야간근무를 잘 할 수 있을지,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을지 등 병원 적응이 걱정되었다.

“신체적 간호뿐만 아니라 영적간호로 그런 쪽으로 사람 대 사람, 간호사 대 환자의 좋은 관계를 실현시키고 싶어요. 엑셀런트한 간호사가 되고도 싶지만 그러면 나는 프라이드한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중략) 잘 어울릴까 하는 걱정이 되

긴 하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아예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괜찮는데 순간 부딪히면 기분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참여자 2)

####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대학생활 경험을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확신에 찬 새로운 도전’, ‘낮설고 힘겨운 간호학의 길’, ‘굴러온 돌의 내 자리 찾기’, ‘꿇꿇이 버티기’, ‘인생의 업그레이드’ 등 5개 하부주제가 도출되었다.

‘확신에 찬 새로운 도전’에서 참여자들은 간호사의 꿈, 적성, 취업, 전문가로 자기개발, 부모님의 권유 등의 이유로 간호학에 편입하였으며 간호만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Sin Gyeong-Lim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편입생들은 과거에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오래 숙고하게 되었으며 적성, 재능, 취업, 임금, 전문직 여성으로서의 삶 등을 고려한 결과 간호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간호학과 편입 동기는 적성, 취업, 자기개발로, 자기 부합적이며 현실적이고 진취적이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간호 전공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전공의 재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타 학과로부터의 편입생이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전반적인 배경에 부합되며(Kim Kyoung-Jun, 2000), 간호학과 편입생은 학과 선택 시 보다 자기 결정적이고(Kim Yeong-Kyeong et al., 2005), 일반 입학생에 비해 전공 만족도와 충실도가 높았다(Kim Mi-Sook et al., 2008)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편입생들이 이렇게 전공에 더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편입으로 인한 자부심, 새로운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 편입 준비에 소비된 시간, 또래에 비해 졸업 및 사회진출이 늦어진다는 불안감 등이 있었으며(Park

Byung-Young, 2009)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통한 방향의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험이 나타난 Kim Kon-Hee & Hwang Eun-Hee(201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편입은 새로운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적응이라는 과제를 제기하지만, 간호학과 편입생들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전공에 대한 만족, 충실함은 새로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자원이 될 수 있다.

‘낮설고 힘겨운 간호학의 길’에서 참여자들은 편입을 준비하면서 간호학과와 교육과정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였지만, 실제 부딪혀본 결과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음을 밝히고 있다. 참여자들은 방대한 학습의 양, 선수지식 부족, 영어로 된 의학용어, 잦은 평가, 낮은 수업 및 평가 방식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간호학과 편입을 간절하게 바랬던 초심을 돌아보고 자기결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버티어냈다. Sin Gyeong-Lim et al.(2003)에 의하면 편입생은 임상실습 병행, 기초지식 부족, 편입생에 대한 제도적 배려의 부족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다시 선택한 전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전공 공부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한 편입생은 선수과목, 이전 대학과 편입대학의 커리큘럼의 차이, 수강과목이나 교수에 대한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업 성취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Park Byung-Young, 2009). Kim Kon-Hee & Hwang Eun-Hee(2012)의 연구에서도 학교에 매여 움썅달썅하기 힘들고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워 공부밖에 할 수 없었다는 유사한 경험이 나타났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편입생의 학업성취도는 기존 재학생에 비해 낮으며, 자연계열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크다. 거기에 편입생에 대한 대학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성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Park Byung-Young, 2009). 따라서 편입 초기에 선수과목 수강이나 보

충지도 등을 통해 전공지식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는데, 편입생들은 학기 중 이수하는 학점이 포화 상태이므로 방학을 이용한 계절학기나 온라인교육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선배 편입생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도록 멘토-멘티의 연계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낮선 교수·학습방식’에 대한 호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호학과 교육과정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훈련을 통해 학생이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지식을 갖추고 임상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Park Jin-Ah & Kim Bok-Ja,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일방적인 강의전달식 교수법과 기계적인 암기 위주의 학습법 등 이전 학과에서 보기 힘든 지식 습득과 평가 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Kim Kon-Hee & Hwang Eun-Hee(2012)에서도 학문보다 면허를 위한 학원 같은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경험이 보고되었다. 간호학생의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현재 다수의 간호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굴러온 돌의 내 자리 찾기’에서 참여자들은 편입 초기에는 굴러온 돌처럼 기존학생들과 괴리감을 느끼고 학과 소속감도 알았지만 일반입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과 편입생끼리의 지지로 차츰 학과 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었다. 이는 일반입학생의 입장에서 편입생은 자신과 상이한 경로로 들어온 나이 많은 학생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편입생의 적응전략은 재학생과의 적극적인 관계형성과 편입생끼리의 동류집단 네트워크 형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Park Byung-Young, 2009)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들은 먼저 다가가는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학과 내 남학생의 경험도 이와 유사하여, 소수자로서 학과적응을 위해 같은 성별인 남학생끼리 연대하였다(Kang Kyung-Ja &

Kim Moon-Jeong, 2015). 편입생들은 이전 전공의 학문적 정체성과 편입 후 ‘경계선상의 위치’로 인해 기존학생과 완전한 집단을 이루는 것이 어려우며, ‘경계선상의 위치’를 공유한 편입생들끼리 동질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고된 바(Kim Yeong-Kyeong et al., 2005),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과적응을 위해 특정한 성질을 공유한 소수가 결속하여 상호지원을 교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굴러온 돌의 내 자리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편입 초기는 편입생끼리 동병상련의 정을 나누는 것으로, 편입생 울타리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Kim Kon-Hee & Hwang Eun-Hee(201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3학년 때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은 전문지식 습득뿐 아니라 편입생의 무리에서 벗어나 기존학생들과 교류증진과 학과적응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편입생들은 다른 학제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며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Jin-Hee, 2012). 즉 편입생에게 임상실습은 전공에 대한 확신과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기존학생들과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 그러나 임상실습 이전에 조기 학과적응을 촉진하고 학과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편입생과 기존 재학생들 간에 교류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입학 직후부터 수업에 다양한 조별활동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유아교육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Yeom Ji-Sook(2009)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소모임 활동이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같은 조 안의 학생들끼리 보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Sin Gyeong-Lim et al.(2003)도 소규모 그룹에서 느끼는 소속감이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나이 차이가 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기도 하므로 편입생을 실습 조에 배정함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상대적으



로 적은 복학생이나 나이 많은 재학생과 함께 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대학생활의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쫓쫓이 버티기’ 전략으로 적응하였고, 편입을 ‘인생의 업그레이드’가 된 전환점이자 성취로 의미화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간호사로서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선택해서 걷게 된 길이므로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내가 감당해야 함’의 범주로 나타난 Kim Kon-Hee & Hwang Eun-Hee(2012)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타 전공이기는 하나 유아교육과 편입생이 학기 말에 몰라보게 발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성취감을 느끼며, 유아교육자로서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한 Yeom Ji-Sook(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이전 전공과 간호학의 융합을 그려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편입생들은 이전의 전공을 간호학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다학제적 사고를 학업 초기부터 한다고 보고한 Sin Gyeong-Lim et al.(2003)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에 Kim Yeong-Kyeong et al.(2005)은, 편입생은 다른 대학 교육현장에서 형성된 학문적 정체성과 이로 인한 인간과 사물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기존학생들과 융화하거나 간호전문직의 정체성 확립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Young-Gil(2008)에 의하면 토마스 프리드만이 주장한 자본주의체제로 단일화되고 장벽이 없어진 ‘평평한 지구’를 리드할 글로벌 인재의 양성은 학문의 벽을 헐고 융합하여 새로움을 끌어내는 융합에 근거한다. 따라서 편입생이 가진 과거 전공의 정체성을 간호 정체성의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기보다 다학제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미래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간호 발전에 더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간호학과 편입생들은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확고한 목표의식과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감은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원이었다. 기존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측면이 있었지만 이는 편입생에 대한 제도적 배려의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편입생은 적응 초기에 기존학생들과 이질감이나 괴리감을 경험하였으나 이들과 친밀하고 상호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편입생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부는 괴리감과 낮은 학과 소속감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에 다양한 조별 활동을 포함하고, 편입생의 학과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간호학과 편입은 자기결정, 성취, 전환의 경험으로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과거 전공을 간호에 접목시켜 보고 싶다는 일부 참여자들의 소망을 접하면서 편입생을 간호정체성이 불확실하고 조금 부족한 인력자원이 아니라, 새로운 간호의 발전을 견인할 잠재적 인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간호학과 편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간호학과 편입생을 위한 교우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현장에서 간호학과 편입생을 위해 계절 학기나 온라인 교수학습매체를 통해 선수과목 강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Cameron, C. S.(2003). The lived experience of transfer students in collaborativ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 Guba, E. G.(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29(2), 75~91.
- Graneheim, U. H. & Lundman, B.(2004).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 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Nurse Education Today*, 24, 105~112.
- Kang, Kyung-Ja & Kim, Moon-Jeong(2015). The experience of friendship in 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6), 1665~1675.
- Kim, Kon-Hee & Hwang, Eun-Hee(2012). Transfer-students' lived experience of the first semester in the baccalaureate nursing program: University life adjustment and crisis overcome.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8(5), 123~142.
- Kim, Kyoung-Jun(2000). A study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transfer collegia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 Ji University, Seoul.
- Kim, Mi-Sook · Lee, Soo-Jeong & Kim, Sung-Hoon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criteria for college admission decision and student's college achieve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Yeong-Kyeong · Cho, Myung-Ok & Yang, Jin-Hyang(2005). The experiences of identity developing among the enrolled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6(1), 15~31.
- Kim, Young-Gil(2008). We should cultivate integrated talents in the global era, *The Monthly Technology & Standards*, 72(0), 13~14.
- Lee, Eun-Kyoung(2000). A study for transferring students' status, educational model and program development, *A Study for Students Life*, 34, 28~50.
- Lewis, C. & Lewis, J. H.(2000). Predicting academic success of transfe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9(5), 234~237.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 Oh, Young-Jae(2006). A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of transfer students after transferenc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4(2), 451~474.
- Park, Byung-Young(2009). College students' transfer and countermeasures, *KEDI Position Paper*, 6(3), 1~32.
- Park, Jin-Ah & Kim, Bog-Ja(20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6), 840~850.
- Park, Jin-Hee(2012). Comparison of nurses' image among BSN, 2nd-BSN and RN-BS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University, Gwangju.
- Sandelowski, M.(1986).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3), 27~37.
- Sin, Gyeong-Lim · Cha, Eun-Jeong & Kim, Yeong-Hye (2003). The lived experience of a student transferring into the nurs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6), 722~730.
- Yeom, Ji-Sook(2009). A study of experiences of transfer 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2), 239~263

---

• Received : 07 December, 2015

• Revised : 19 February, 2016

• Accepted : 24 February, 2016